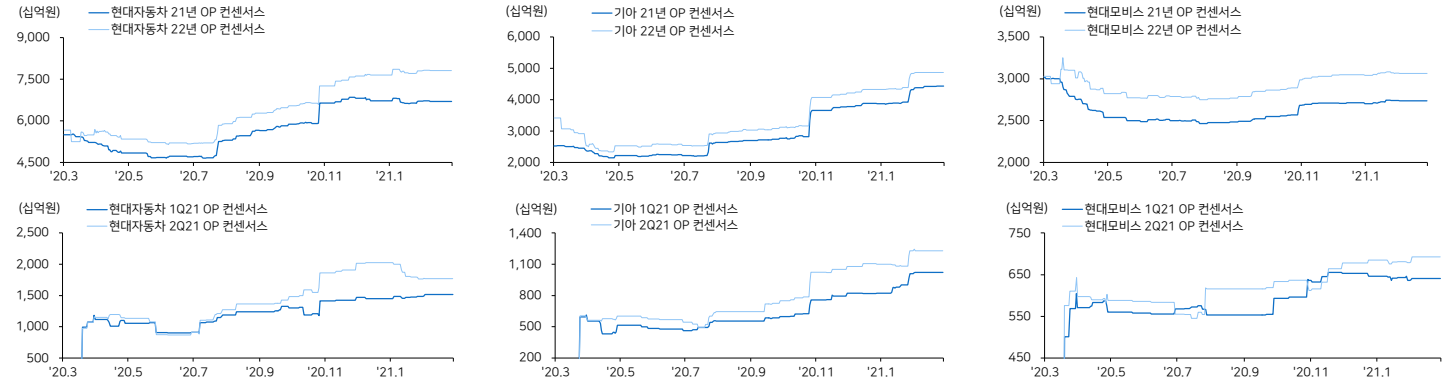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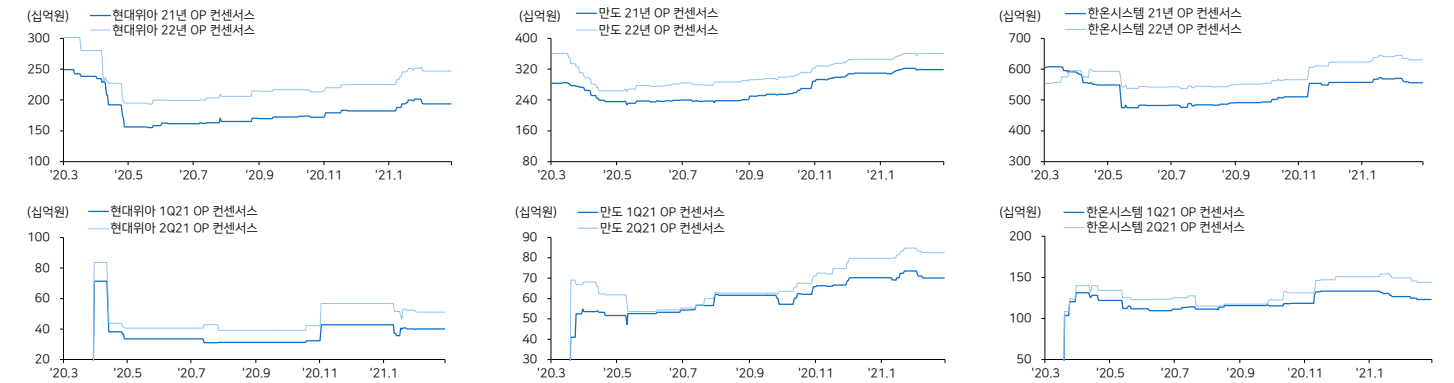
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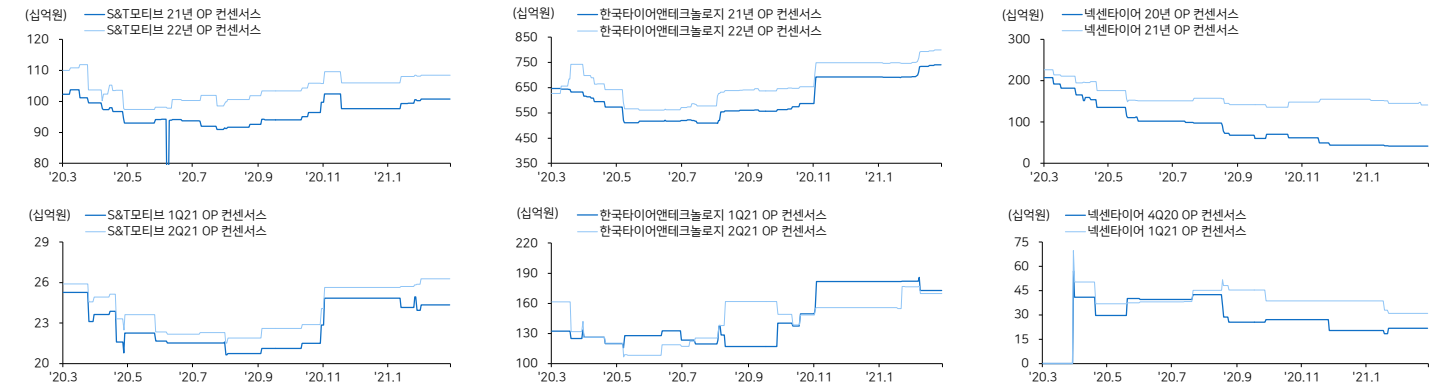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차 / 현대모비스



현대위아 / 만도 / 한은시스템



S&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'수 반도체 사태 해결' 정부·삼성·현대차 뭉쳤다 (파이낸셜뉴스)

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, 현대차 등과 함께 미래차-반도체 연대 협의체를 만들고, 미래차 및 반도체 시장 선점과 국내 공급망 안정화 중장기 협력방안을 논의, 단기적으로 수입을 위한 신속 통관과 국내 업체의 빠른 성능평가를 지원할 예정.
<https://bit.ly/3bXzrql>

'기아차 맞아?' 첨단 이미지 강조한 'K8' 실내 디자인 공개 (MoneyS)

출시를 앞둔 기아 K8의 실내 디자인 이미지가 4일 공개됨. 기아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공조 시스템을 통합해 조작할 수 있는 터치 방식의 전원 조작계를 K8에 처음 적용했으며, 디자인에서는 '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'가 특징.
<https://bit.ly/3elg0uv>

'테슬라, 가장 가치있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될 것' -UBS (한국경제)

UBS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시장이 한 해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면서, "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자의 효율적 생산과 판매량 등에서 테슬라에 맞설 수 있었지만, 테슬라를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지배적일 것"이라고 분석함.
<https://bit.ly/3e57TC5>

중 바이두, 전기차 회사 '지두' 정식 설립 (ZDNet Korea)

바이두가 길리자동차와 함께 세운 전기차 합작사의 사명을 '지두(集度)자동차'로 결정하고 정식으로 등록함. 바이두와 길리자동차의 자본 비율은 55% 대 45%이며, 회사의 경영 범위는 친환경차 및 관련 부품 기술 서비스, 개발, 컨설팅, 교육 등.
<https://bit.ly/30973vX>

현대차 3, LG에너지 7 '코나EV 등 리콜 비용 합의' (매일경제)

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코나EV 등 리콜 비용에 대해 3대 7로 분담키로 4일 합의했으며, 총 리콜 비용은 1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는데, 30%를 부담할 현대차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에 리콜 비용 3,866억원을 반영한다고 공시함.
<https://bit.ly/3e7f7h>

하이브리드카, 2023년부터 친환경차서 제외시킨다 (한국경제)

정부가 2023년부터 하이브리드카(HEV)를 친환경차에서 제외할 방침. 이렇게 되면 HEV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과 공영주차장 할인 등이 사라짐. 이같은 정책 변경으로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으로 더 빨리 재편될 것으로 전망.
<https://bit.ly/3rkqvZ4>

日 혼다, 세계 최초 '레벨3' 자율주행 차량 5일 출시 (조선비즈)

HONDA가 세계 최초로 '레벨3'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'레전드' 승용차를 5일 출시할 예정. 레벨3는 일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운전자를 대신해 운전할 수 있으며 그간 감시 의무도 시스템이 맡음.
https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1/03/04/2021030402607.html?utm_source=naver&utm_medium=original&utm_campaign=biz

카카오모빌리티, 기아차와 손잡고 전기택시 도입 박차 (세계비즈)

현재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16,000여대 중 전기차는 180여대로, 1% 남짓에 불과한 가운데, 얼마 전 기아차와 손잡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차량 구매 비용 지원을 필두로 다양한 혜택을 내세워 전기 택시 보급에 속도를 낼 방침.
<https://bit.ly/3KIRAMI>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